

## ※ 루시, 종교와 문자의 시작

- I. 중세 시대 슬라브 민족이 중심이 된 사회, 루시(Русь, Rus')
- II. 다문화적 요소의 중심에 선 기독교와 키릴 문자
- III. 키예프 루시 시대(860?~1240)의 특수성

### I. 중세 시대 슬라브 민족이 중심이 된 사회, 루시(Русь, Rus')

- 슬라브 민족(Славянский народ; the Slavs)은 게르만, 라틴, 앵글로-색슨, 발트 민족 등과 함께 유럽 대륙의 주요 민족의 하나
  - 5세기 후반부터 중동부 유럽의 평원지대에 부족단위로 군거
  - 9세기 경,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vikings; варяги)들을 불러들이며 부족 단위의 군거 생활에서 봉건적 연맹 체제의 국가 형태로서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함
  - 10~13세기 초, 러시아 역사의 소위 '키예프 루시'(Киевская Русь, Kievan Rus')라는 시기, 지금의 우크라이나 남동쪽 초원지대의 투르크 계열 유목민들의 '유입'과 그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짐
  - 13~15세기(1480), 몽고-타타르의 침입과 지배 기간 동안 몽고와 타타르 문화와의 섞임
  - 비록 대규모의 유입민으로 인한 혈통 혼합은 아니었지만, 러시아라는 역사의 무대를 구성하는 등장인물은 슬라브 민족 이외에도 북방의 노르만, 핀 민족, 남방의 투르크, 그리고 스키타이 문명의 이란계가 함께 자리함.
  - '타타르'(tatar; tatar)인은 역사적으로는 몽고-통구스-만주 지역의 부족에서 유래했으나, 오늘날 터키의 조상이 되는 투르크 계통의 언어를 쓰며, 오늘날 동아시아 계통의 몽고 민족이 아님!!!
- => 이민족과의 접촉, 지배계층으로의 유입에 대한 기억은 이후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시절,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공존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되기도.

### II. 기독교와 키릴 문자, 루시의 근간

\* 키예프 루시는 10세기 말(988), 여러 다양한 동슬라브 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주로 하여 비잔틴 제국(외부)으로부터 기독교(동방정교)를 도입.

#### 1. (동)슬라브의 기독교 수용 배경

- 1) 정치적 측면에선, 키예프 루시의 내부 통합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이데올로기를 이식하기 위해
- 2) 군사적 측면에선, 비잔틴 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위해 (남부 초원 지대의 유목민들 방어를 위해, 한편 비잔틴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침략하던 키예프 루시를 진정시키기 위해)
- 3) 경제적 측면에선, 비잔틴 제국과의 통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 4) 문화적 측면에선, 당시 가장 선진적이라 루시인들에게 여겨졌던 비잔틴 제국의 유럽 기독교 문명으로의 진입을 위해

2. (동)슬라브의 기독교 수용 과정

- 1) 9세기경부터 이미 개별 공후들이 간헐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음.
- 2) 키예프 루시 전체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것은 988년 키예프 대공 블라디미르의 결정에 의한 것임.
- 3) 이슬람, 로마 가톨릭, 유대교 등과 비교한 후, 동방정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 4) 연대기에 따르면, 그 직접적 원인은 “동방정교의 사원에서의 전례의식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했기 때문이라고 함.

3. 기독교 수용의 결과

- 1) 낭만적, 예술적 정서를 강하게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슬라브인들에게 교의적인 체계를 강조하는 로마가톨릭보다 아름다움에 대한 직관을 강조하는 동방정교는 절묘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를 통해 슬라브인은 미를 이해하는, 이른바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우주 삼라만상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프리즘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기도 했다.
- 2)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생적인 민간토착신앙과 어울려 “이중신앙”이라는 특이한 ‘문화체’culturum를 유지할 수 있었다.

\* 러시아로의 문자 전래

- 860년 동슬라브인들의 첫 콘스탄티노플 침입 후, 비잔틴 제국은 주변의 야만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했음.
- 마침 이때 오늘날의 체코 지방에서 기독교를 전파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863년 슬라브인 혈통으로 슬라브 구어에 능숙하며 콘스탄티노플에서 교육받은 비잔틴의 학자인 키릴(Cyrill; Кирилл)과 메포디(Methodius; Мефодий)를 파견.
-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슬라브 구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창안해 성서를 번역, 기독교를 전파.
- # 이들 형제가 창안한 문자를 **키릴 알파벳(Cyrillic alphabet; Кириллица)**이라고 한다.
- 키릴과 메포디가 창안해 전파하기 시작한 슬라브인들의 문자는 이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보다 간소화되어 오늘날의 불가리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의 남슬라브 지역에서 널리 쓰이다가 10세기 중반 이후 키예프 루시로도 확산.

기독교	
종교	로마가톨릭      동방(그리스)정교 --> 러시아정교
인도-유럽어족	
언어	인도이란어파, 게르만어파, 로망스어파,      슬라브어파 --> 서/남/동슬라브어, 켈트어파, 발트어파 ....      러시아어
<b>로마 유산</b> <b>(비잔틴 경유) 그리스 유산</b>	

\* 비잔틴 제국의 경우 로마가톨릭보다 종교적으로 훨씬 관용적이고 관대했었다.

- 이런 분위기에서 동방정교가 주로 전파된 지역에서는 토착어(vernacular language; 이 경우 슬라브 구어)가 교회의 언어로 사용될 수 있어 지역어 발전에 한걸 도움을 주었다.

- 반면, 그리스어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고전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유산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축소되었다.

- 반드시 동방정교의 영향만은 아니겠지만, 관조적이며 묵상과 수행과 정진을 통한 종교적 깨우치과 각성을 중시한 동방정교의 기본적인 흐름은 러시아인들의 성격과 잘 부합해, 러시아의 정신문화에 사변적, 지적 성찰보다 직관적이며 감각적, 그리고 관조적인 전통이 우위를 차지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 이러한 종합적 영향 하에서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의 근대화 이후 서구문물의 공통 <표현형>을 학습, 수용한 러시아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문화적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된다.

### III. 키예프 루시 시대(860?~1240)의 특수성

- 러시아 역사의 시작, 남(비잔틴, 투르크 계열 유목민족) / 북(바이킹) 세력과의 접촉

\* ‘노르만설’ (Norman Theory)

- 9세기 경,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랑고이인(варяги; Varangians)들을 불러들이며 봉건적 국가 형태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함.

- 러시아의 연대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862년), “그리하여 그들(=노브고로드 시민)은 바다 건너 바라그 루시인들에게로 갔다. 이 바라그인들은 특별히 루시인이라고 불렸다. 그 중 일부는 스웨덴인, 또 다른 무리는 노르만인, 앵글인, 고트인으로 불렸다. 추드족(오늘날의 에스토니아 지방의 민족), 슬라브족, 크리비치인(노브고로드 근처의 슬라브 부족)들은 루시인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땅 전체는 광대하고 풍요롭지만 질서가 없습니다. 와서 우리를 통치해주고 다스려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세 명의 형제를 데리고 이주했다. 형제들 중 첫째 류리크(Рюрик)는 노브고로드에 정착했다. 노브고로드 지역은 이들 바라그인들 때문에 루시 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노브고로드 주민들은 바라그인들의 후손이지만, 이전에는 슬라브인들이었다.”

이 구절에서 비롯해 서구의 이른바 “노르만설”과 이를 기각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밀고 당기기.

- 시간이 좀더 지나면서 북쪽의 노브고로드에서 남쪽의 키예프로 중심지가 옮겨감.

; 키예프 루시(Киевская Русь);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향이 미미함을 반증?

- 이후 류리크의 형제와 후손들은 키예프와 노브고로드 모두에서 빠르게 슬라브인들에게 흡수되어 감.

- 정체(政體)로서 “키예프 루시(Киевская Русь; Kievan Rus’)”란?

; 당대 중세 서유럽의 봉건주의와의 차이점과 봉건주의 유럽과의 교류의 한 축

- 정교(正敎 Православие; Orthodoxy)의 단일문화권 (vs 로마가톨릭, ‘라틴이단’) cf) 기독교내의 관계, 동서교회 분리(1054)

- 수좌도시 키예프의 계승권 투쟁, 내부분쟁으로 세력약화, 몽고의 침입으로 종말

- ❖ 몽고의 키예프 루시 점령의 세계사적 의미 - 서유럽 문명의 방과제
- ❖ 점령의 동슬라브 내적 의미 - (오늘날) 러시아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분리 시작,  
= 이후, 동슬라브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키예프 루시의 북동부는 훗날 러시아의 중심으로 정상, 그 중심에는 초기 블라디미르와 수즈달, 나중에는 모스크바가 있었다.

=> 북방의 노르만과 핀 혈통, 그리고 남방 유목민족과의 혈연/문화적 교류, 외래로부터 수용된 정신적 이데올로기인 기독교와 이질적인 사상 체계인 그리스 문자에서 비롯한 슬라브 문자 등이 모두 혼입, 용융된 키예프 루시라는 중세의 동슬라브 단일문화체, 즉 오늘날 러시아의 조상들은 그 출발부터 다인종다문화적인 모습에서 비롯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